

농생명소재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7월 23일까지 기능성식품 제조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이 다음 달 23일까지 '농생명소재 기능성식품 제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성분분석 5건,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 3건, 특허 및 인증 지원 3건, 기술이전 1건 등으로 구분돼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전북지역 내에 소재한 농생명소재 관련 중소·중견 기업으로,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하다.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 프로그램의 경우 총 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성분분석은 총 비용의 90%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기술이전 프로그램은 총 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희망업체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홈페이지(www.jami.re.kr)에서 내

려받은 제출서류를 작성해 지역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연구원은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진단 및 선정평가를 거쳐 오는 8월중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올 하반기 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다터 지원 13건, 브랜드 개발 지원 3건, 박람회 참가 지원 2건,

홍보물 제작 지원 3건, 마케팅 전략수립 지원 2건, 수출지향형 제품 지원 3건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오병준 원장은 "연구원은 앞으로 기업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농생명소재 관련 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여 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덕진구,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돌방지 시트 부착

팔복동 추천대교~팔복남양아파트 구간에 조류 충돌해 죽거나 다치는 사고 막기 위해

도로변에 설치된 투명방음벽에 조류가 충돌해 다치거나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새들이 장애물로 인식해 피할 수 있는 시트를 방음벽에 부착했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장병호)는 다음 달까지 총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해 팔복동 추천대교에서 팔복남양아파트까지 설치된 612m 구간의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돌방지 시트를 부착한

다고 29일 밝혔다. 시트 부착은 도로 개설로 인한 차량소음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한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조류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충돌로 인

한 방음벽의 손상을 막기 위한 취지다.

덕진구는 조류의 시각 특성에 맞춘 점자형 시트(8mm×8mm)를 투명방음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했다.

사람보다 시력이 20배 좋은 조류는 작은 점 하나를 장애물로 인식하고 세로 5cm, 가로 10cm 미만의 공간은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조류보호단체에서 인증 받은 제품으로 시공했다.

특히 시트를 부착해도 사람이 볼 때는 시야를 가리지 않아 채광과 풍광을 위해 설치한 투명방음벽의 장점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투명방음벽 시트 부착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병호 덕진구청장은 "앞으로는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죽거나 다치는 야생조류가 없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의 효과가 검증되면 유사한 방음벽이나 투명유리창에도 사업을 확대 시행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덕진구는 다음 달까지 총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해 팔복동 추천대교에서 팔복남양아파트까지 설치된 612m 구간의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돌방지 시트를 부착한다.

전주시, 청년 대상 '금융코칭' 진행

최근 2030 청년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에 따른 신용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기초 금융지식을 전수하고 나섰다.

시는 29일 화상회의 앱인 줌(ZOOM)을 활용해 지역 내 만 18~30세 청년

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재무 설계를 돕는 '금융코칭'을 진행했다.

이번 금융코칭에서는 국민·퇴직·개인연금 등으로 보장되는 연금구조의 특징을 비교하고 연금계좌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법과 효율적인 세제혜택 전략에 대해 알아보면서 생애주기별 적합한 투자방법을 안내받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개인별 투자 성향과 투자 위험도를 파악해보면서 연금과 투자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재테크 시야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

다음 달 13일과 27일에는 전인구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돈의 흐름', '파이어(FIRE)족의 시간관리 비법'을 주제로 금융코칭이 이어진다. 9월과 10월에는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과, 11월에는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부터 코칭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금융코칭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회성을 강화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심리코칭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청년온라인플랫폼(youth.jon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3-281-254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풍패지향 전주, 태조어진을 뒀시다'

전주시·하예랑역사문화연구원, 11월까지 생생문화재 사업 추진

전주시와 (사)하예랑역사문화연구원원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경기전 일원에서 '풍패지향 전주, 태조어진을 뒀시다'를 주제로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 공연, 체험 등을 진행하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8년 연속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올해 프로그램으로는 ▲도전 나도 문화유산활용가 '오감 토크' ▲우리는 홍보대사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문화유산 참의교육' ▲태조어진 봉안축제 등이 준비됐다.

먼저 도전 나도 문화유산활용가 '오감 토크'는 다음 달 7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7회에 걸쳐 강연과 현장답사가 진행된다.

조선 태조어진을 비롯한 전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향후 문화유산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 4일까지 하예랑역사문화연구원 홈페이지(hayerang.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문화유산 참의교육'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조선왕실을 주제로 체험교육과 현장답사가 이어진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 활동가와 함께 문화재를 활용한 교구를 발굴하는 활동을 벌인다.

9월 18일 열리는 '태조어진 봉안축제'의 경우 봉안돼 있는 태조어진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미션형 문화유산 참의교육이 운영된다. 특히 이날은 평소엔 개방되지 않는 조경묘도 개방된다.

조경묘는 전주이씨 시조 '이한'과 그의 부인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하예랑역사문화연구원(070-7527-640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전주시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야호학교의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청소년들을 찾아 나섰다.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다음 달 20일까지 전주시지역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야호학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5명을 모집한다.

야호학교 청소년운영위원들은 올 연말까지 ▲정기회의(매월) ▲기관장과 의 간담회 ▲야호학교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자문·평가 등 야호학교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 청소년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며 우수 청소년운영위원으로 표창을 받거나 연수를 받는 기회가 제공된다.

희망자는 직접 또는 학교장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지원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이메일(yunjin21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야호학교(063-281-6584)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